

#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

The story of Holy Buddha

# 부처님

제6화 라훌라의 탄생 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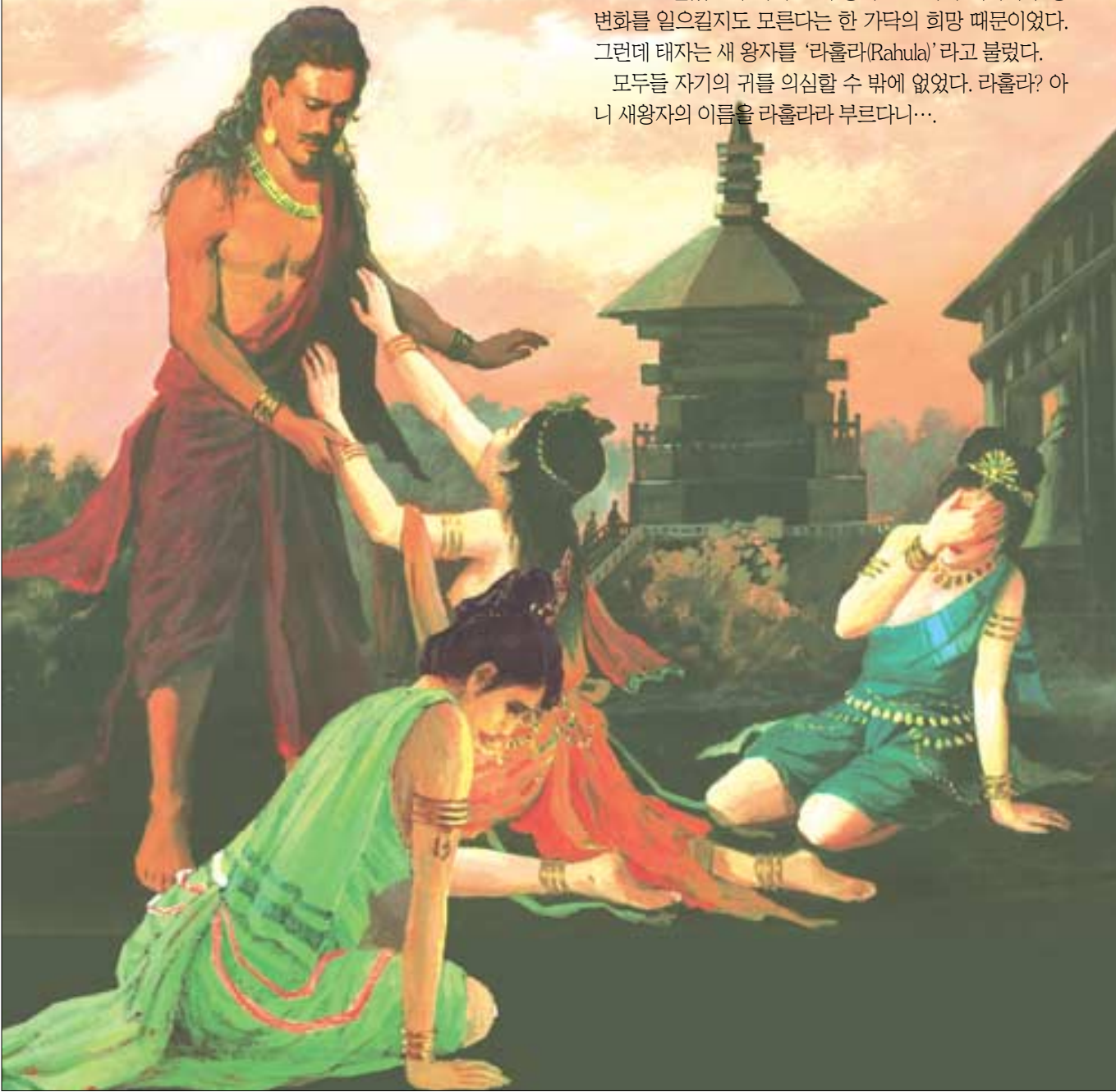


**태** 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결심 또한 굳건하여  
접들의 힘으로 깨뜨릴 수가 없을 것임을 알게 되  
었습니다. 그러하면 태자님의 말씀처럼 왕가의  
혈통은 반드시 이어가야 하므로 아기왕자의 탄생이 있을  
때 까지 출가를 보류하여 주옵소서...

아무리 태자가 결심을 한다 해도, 소위 사카족을 다스리

는 왕족의 태자로서 자손을 남기지 않고 궁을 떠날 수는  
없을 것이라는 것이 여인들의 생각이었다.  
그러는 사이에 마치 하늘의 자비라도 받은 듯이 정비 야  
소다라가 그것도 적자인 아기왕자를 생산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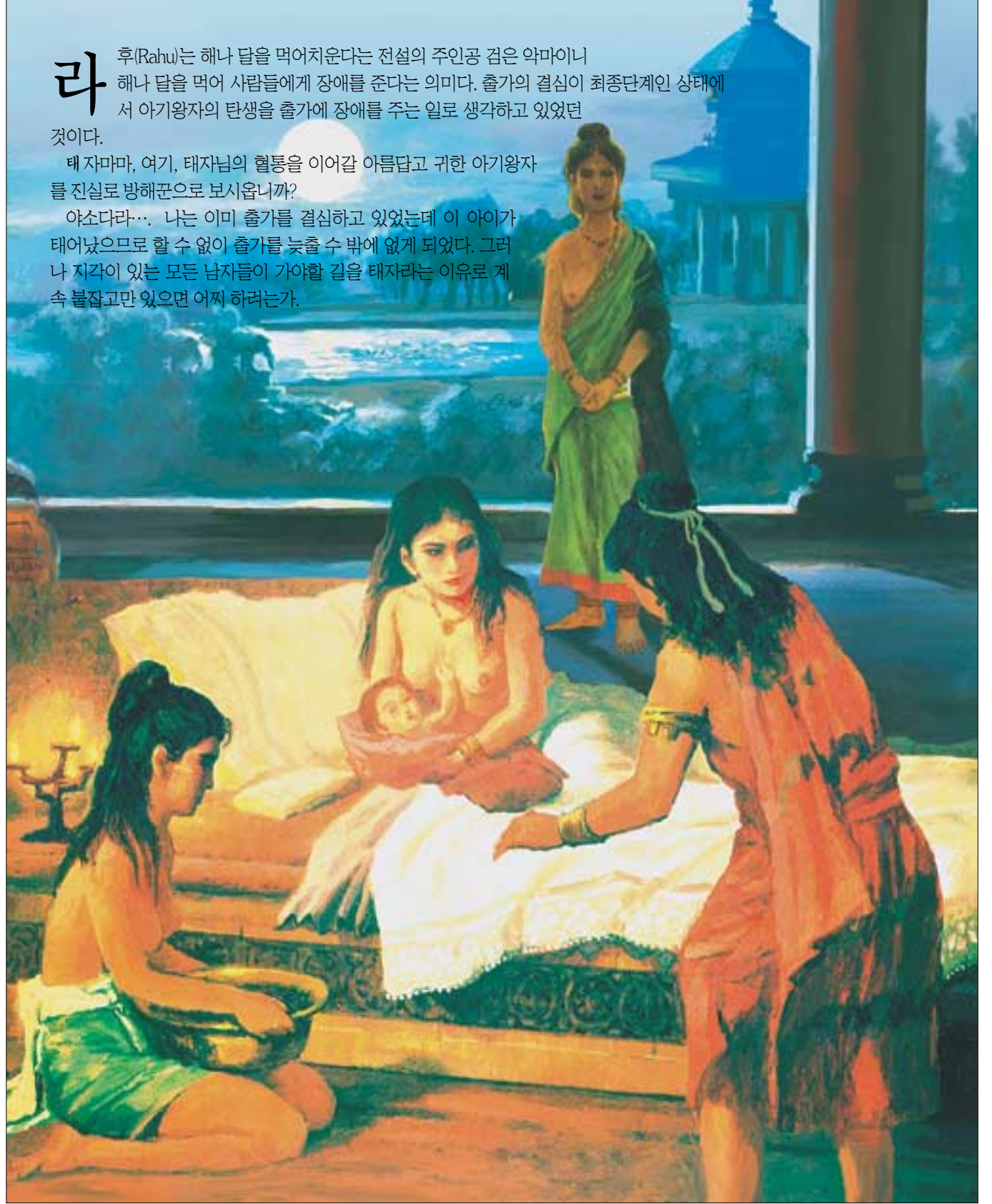
**태** 자님 축하드립니다. 아기왕자에게 아름다운  
이름을 지어 주소서. 왕비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  
올랐으니 어쩌면 새 왕자로 인하여 태자가 심정  
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희망 때문이었다.  
그런데 태자는 새 왕자를 '라훌라(Rahula)' 라고 불렀다.  
모두들 자기의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. 라훌라? 아  
니 새왕자의 이름을 라훌라라 부르다니...



**라** 후(Rahu)는 해나 달을 먹어치운다는 전설의 주인공 검은 악마이니  
해나 달을 먹어 사람들에게 장애를 준다는 의미다. 출가의 결심이 최종단계인 상태에  
서 아기왕자의 탄생을 출가에 장애를 주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 
것이다.

백자마마, 여기 태자님의 혈통을 이어갈 아름답고 귀한 아기왕자  
를 진실로 방해꾼으로 보시옵니까?

야소다라... 나는 이미 출가를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 
태어났으므로 할 수 없이 출가를 늦출 수 밖에 없게 되었다. 그러  
나 지각이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가야할 길을 태자라는 이유로 계  
속 붙잡고만 있으면 어찌 하려는가.



**그** 력저력 시간이 흘러 라훌라가 탄생한지 100일을  
무사히 넘기게 되었다. 어느날, 태자는 커다란 사  
자처럼 천천히 걸어서 본궁으로 들어갔다. 마치  
사크라(Sakrodevendra,帝釋)대왕의 아들처럼 마음으로 공  
경하고 자세를 공손히 하며 그의 부왕앞에 나아가 머리속  
여 만안을 여쭙고 다시 한번 죽음의 두려움을 말씀드리며  
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하였다.

"이 세간(世間)의 모든 것은 한번 만나면 반드시 헤어집  
니다. 그러므로 원하옵건대 출가(出家)를 허락하시어 진정  
한 해탈(解脫)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..."

부왕은 출가를 요청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져 크  
게 떨었다. 그것은 마치 거대한 미친 코끼리가 작은 나무  
를 흔들어 요동치듯 하였다.

"부왕이시여, 삼계의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의 바다에 빠  
져 헤어날 길이 없사운데 나 한사람만 금과 은과 갖은 보  
석으로 꾸민 궁전 속에서 오욕의 쾌락을 즐겨본들 그것이  
괴연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습니까? 인생이라 하는 것이

부싯돌에 번쩍이던 불빛이 이내 그 흔적이 없는 것처럼 빠  
른 것이요, 햇빛에 증발해 버리는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 
같은 운명인 것입니다. 꿈결같이 지나온 한세상 되돌아보  
니 그 쓸쓸하고 덧없음이 산머리에 뜬 구름과 같은데 또다  
시 그런 삶으로 후회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옵니까?"

부왕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이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출  
가를 허락하소서... 이제는 아버님 대왕의 뒤를 이어줄 손  
자도 태어났으니 적어도 출가전에 해야 할 의무는 완수한  
것이 아니옵니까?"

"부디 그런 말을 삼가하여라. 아직은 법에 귀의할 시기  
가 아니다. 너는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내가 먼  
저 출가하게 해달라. 이 아비를 버리고 종교사직을 끊는  
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. 지금은 출가할 마음을 접  
어두고 이 세간의 법도를 받아들여 안락하고 좋은 명성을  
얻은 후 출가를 함이 옳지 않겠는가."

